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 화 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진리탐구와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인성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입학 후 대학생활의 과도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학업성적 부진 및 학업도중 탈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04; Lee, 2005).

대학생들의 학업내용은 대학이전의 단계와는 다르게, 전문지식 및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학업성취도의 부진은 이후 성인기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과업의 성공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Pace & Ree, 1979; Kim, 2004; Park, 2006). 아울러 시혜자입장을 벗어나 학습자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습자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개인차를 확인하는 방법조차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서 자존감은 심리적 요인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므로써 다양한 학업 성취결과를 초래한다. Trzesniewski 등(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존감은 대학생활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도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으로 언급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들도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Lee & Lee, 1996; Ross et al., 2005). 또한 자존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Lee 등(2005)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는데,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성공한 학생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

* 경인여대 학술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leehw@kic.ac.kr)

가하나, 실패한 학생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성공한 학생은 전공학문에 대해 높은 가치를 가지며 자존감이 높아진다(Bloom & Bruck, 1971; Lee & Park, 2005). 반면에 학업성취도 향상에 실패한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의 개념을 형성하고, 비현실적으로 행동하며 더 나아가 외부로부터의 변화와 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기재를 보인다. 즉 이들은 흡연율이 높고(Croghan et al., 2006), 스트레스, 상태불안, 특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Ross et al., 2005; Park, Koo, & Jang, 2007).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서 장애로(Cho et al., 2002) 만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저하시키며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 장애를 가져온다(Ha, Oh, Song, & Kang, 2004; Ross et al., 2005).

이러한 부적절한 반응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우울을 더욱 심화시키며, 가족관계나 기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Ha et al., 2004). 우울은 청소년기에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고(Cho, 2002), 성인기까지 계속되고 재발하며 다른 정신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Essau, Conradt, & Petermann, 2000). 청소년 우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발병률이 높는데 여성의 우울증은 신경정신질환의 약 41.9%를 차지하고 남성은 29.3%이며(WHO, 2003) 남성보다도 더 지속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여학생의 우울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Kim & Shin, 2004).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실습수행, 환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의료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Jung & Shin, 2006).

그러므로 간호여대생의 경우, 정서적 문제는 물론

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들은 학업성취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서문제를 연구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동기, 학습양식,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 목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Lee, 2005; Park, 2006).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과 우울 및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개념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우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우울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각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대학생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원인 파악을 통해 예측되는 문제들을 보다 미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해 미래를 위해 보다 계획적인 준비를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과 우울 및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우울,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자존감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Rosenberg, 1965).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관, 인지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Jeon(1974)이 번역한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우울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서로서, 수면 장애, 피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 상실, 외부 세계에 대한 무관심, 절망, 비판,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활동 억제, 자존감 저하, 자기 비하 등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이다 (Blatt, 1976). 본 연구에서는 Blatt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설문지를 Cho(1996)가 번역한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학업성취도

An(2000)은 학습에 의해 얻어진 교과 성적과 학교 교육 활동에서 얻어지는 모든 교육 성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는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일련의 학습과제 및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으로서 학습활동 결과의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학년도 1학기에 취득한 수강과목의 성적과 실습 성적을 종합 평가한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우울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소재한 일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2, 3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개인의 성적이 다른 목적으로는 절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연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딩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학번 및 이름이 아닌 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 이후 동의한 400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기록이 누락되거나 미회수된 자료를 제외한 350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도구는 간호학교수 3인의 검토 후 사용하였다. 포함된 영역으로는 학년, 지각된 경제상태, 거주형태, 부모 생존 여부, 지각된 성격(외향성/내향성/중간), 본인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지원 시 적성 고려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다.

2)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도구를 Jeon(197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3) 우울

Blatt 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 DEQ)를 Cho(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latt 등(1976)은 우울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150개 문항들을 수집한 후, 임상 문헌을 근거로 66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우울 경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1996)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의 우울은 Cronbach's

$\alpha = .83$ 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학업성취도

본 연구는 2007학년도 1학기에 취득한 수강과목의 성적과 실습성적을 종합 평가한 평균으로 측정하였고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였다. 내적 일관도 계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고, 이 도구들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부 경인지역의 대학에 한정하여 임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 181명(51.6%), 3학년 169명(48.4%)이었다.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외향적, 내향적인 성격의 중간이 202명(57.7%),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2명(34.9%), 내향적이고 비사교적이라는 26명(7.4%)이었다. 부모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애정적이다 250명(71.4%), 의존적이다 60명(17.1%), 무관심하다 20명(5.7%), 복종적이다 10명(2.9%), 반항적이다 10명(2.9%) 이었다. 본 학과 지원 시 적성 고

려 여부는 적성을 고려한 학생이 226명(64.6%),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이 124명(35.4%)이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27명(7.9%), 만족한다 152명(43.3%), 보통이다 139명(39.7%), 불만족이다 32명(9.1%) 이었다.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2명(14.9%), 만족한다 179명(51.1%), 보통이다 94명(26.9%), 불만족이다 25명(7.1%)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상태는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5명(12.8%),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46명(70.8%),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59명(16.9%)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 287명(82.0%), 친척 및 자취 63명(18.0%) 이었다. 부모 생존 여부는 부모 생존 330명(94.5%), 아버지 한분 사망이 15명(4.3%), 어머니 사망이 5명(1.2%)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0)

Characteristics	Category	F(%)
Grade	2nd	181(51.6)
	3rd	169(48.4)
Perceived character	Extrovert	122(34.9)
	Middle	202(57.7)
	Introvert	26(7.4)
Attitude to parent	Loving	250(71.4)
	Dependent	60(17.1)
	Indifferent	20(5.7)
	Submissive	10(2.9)
Consideration of aptitude	Disobedient	10(2.9)
	Yes	226(64.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No	124(35.4)
	Very satisfied	27(7.9)
	Satisfied	152(43.3)
Satisfaction of nursing	Moderate	139(39.7)
	Dissatisfied	32(9.1)
	Very satisfied	52(14.9)
Economic state	Satisfied	179(51.1)
	Moderate	94(26.9)
	Dissatisfied	25(7.1)
Residence type	Upper	45(12.8)
	Middle	246(70.8)
	Low	59(16.9)
Parents living	Live with parents	287(82.0)
	Relatives & oneself	63(18.0)
Parents living	Both alive	330(94.5)
	Mom alive	15(4.3)
	Daddy alive	5(1.2)

2.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도 정도

대상자의 자존감은 최소 1.70점부터 최대 4점까지로 평균 3.03±.43, 우울은 최소 2.61점부터 최대 5.14점까지로 평균 4.00±.40, 학업성취도는 최소 65.14점부터 최대 95.97점까지로 평균 87.33±3.74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N=350)

	Mean(SD)	Range
Self-esteem	3.03(.43)	1.70~ 4.00
Depression	4.00(.40)	2.61~ 5.14
Academic achievement	87.33(3.74)	65.14~95.97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우울 및 학업성취도

1) 일반적 특성과 자존감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경제상태, 성격, 부모태도, 적성고려, 학교생활만족, 간호학 만족이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경제상태가 상이다 군(3.20±.43)이 경제상태가 하이다 군(2.97±.44)보다 자존감이 높았고(F=3.02, p=.030), 성격이 외향적인 군(3.14±.42)이 내향적인 군(2.63±.40)보다 자존감이 높았다(F=16.52, p<.000). 또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인 군(3.10±.41)이 반항적인 군(2.72±.35), 복종적인 군(2.88±.60), 의존적인 군(2.92±.41)보다 자존감이 높았다(F=3.68, p=.003). 적성을 고려한 군(3.07±.42)이 적성을 고

<Table 3> Differences of self-esteem, depressi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50)

Characteristics	Category	Self-esteem			Depression			Academic achievement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2nd	3.01±.44	1.26	.261	4.00±.39	.02	.885	87.54±3.73	1.11	.291
	3rd	3.06±.42			4.00±.42			87.11±3.76		
Economic state	Upper	3.20±.43	3.02	.030	3.68±.64	3.45	.023	86.94±4.25	.64	.586
	Middle	3.02±.41			3.88±.71			87.45±3.59		
	Low	2.97±.44			4.21±.59			87.02±3.57		
Residence type	Parents	3.03±.43	.48	.780	3.86±.41	3.63	.003	87.33±3.89	.30	.910
	Relatives	2.97±.34			4.53±.90			86.34±2.47		
Parents living	Both alive	3.03±.42	.52	.716	4.00±.39	2.19	.070	87.31±3.78	.88	.475
	Mom alive	3.01±.48			3.80±.52			87.51±2.73		
	Daddy alive	3.05±.54			4.23±.64			89.46±4.65		
Perceived character	Extrovert	3.14±.42	16.52	.000	3.74±.70	1.54	.215	87.31±3.11	1.86	.157
	Middle	3.02±.40			4.19±.81			87.57±3.70		
	Introvert	2.63±.40			3.98±.67			86.05±6.13		
Attitude to parent	Loving	3.10±.41	3.68	.003	3.86±.71	.82	.532	87.83±3.67	2.86	.015
	Dependent	2.92±.41			3.96±.67			86.73±3.56		
	Indifferent	3.00±.39			4.15±.64			86.31±3.88		
	Submissive	2.88±.60			3.97±.87			87.20±3.18		
Consideration of aptitude	disobedient	2.72±.35	5.15	.024	4.81±.47	1.19	.275	85.08±2.36	4.27	.039
	Yes	3.07±.42			3.98±.41			87.64±3.81		
Satisfaction of school	No	2.96±.43	8.30	.000	4.03±.38	3.18	.014	86.77±3.57	1.94	.122
	Very satisfied	3.29±.50			3.75±.61			88.01±3.1		
	Satisfied	3.11±.39			3.79±.70			87.78±3.7		
	Moderate	2.97±.39			3.95±.66			86.79±3.9		
Satisfaction of nursing	Dissatisfied	2.79±.50	7.05	.000	4.49±.66	.41	.830	87.25±2.6	3.53	.004
	Very satisfied	3.27±.41			3.81±.74			88.35±3.68		
	Satisfied	3.05±.41			3.86±.66			87.75±3.65		
	Moderate	2.96±.40			3.95±.73			86.49±3.74		
	Dissatisfied	2.70±.37			4.29±.73			85.47±3.38		

려하지 않은 군($2.96 \pm .43$)보다 자존감이 높았으며 ($F=5.15, p=.024$), 학교생활이 매우 만족한다 군 ($3.29 \pm .50$)이 만족하지 못한다 군($2.79 \pm .50$), 보통이다 군($2.97 \pm .39$)보다 자존감이 높았고($F=8.30, p<.000$), 간호학에 만족한다 군($3.05 \pm .41$)이 만족하지 못한다 군($2.70 \pm .37$)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05, p<.000$)<Table 3>.

2) 일반적 특성과 우울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경제상태, 거주형태,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경제상태가 하이다 군($4.21 \pm .59$)이 경제상태가 상이다 군($3.68 \pm .64$)보다 우울이 높았고 ($F=3.45, p=.023$), 친척집 또는 자취하는 군 ($4.53 \pm .90$)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군($3.86 \pm .41$)보다 우울이 높았다($F=3.63, p=.003$). 또한 학교생활이 만족하지 못한다 군($4.49 \pm .66$)이 학교생활이 매우 만족한다 군($3.75 \pm .61$)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18, p=.014$)<Table 3>.

3) 일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부모에 대한 태도, 적성 고려여부, 간호학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인 군(87.83 ± 3.67)이 반항적인 군(85.08 ± 2.36), 무관심한 군 (86.31 ± 3.88)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고($F=2.86, p=.015$), 적성을 고려한 군(87.64 ± 3.81)이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군(86.77 ± 3.57)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27, p=.039$). 또한 간호학에 만족한다 군(87.75 ± 3.65)이 만족하지 못한다 군 (85.47 ± 3.38)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3, p=.004$)<Table 3>.

4. 자존감과 우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존감, 우울,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Table 4>와 같았다. 자존감과 학업성취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r=.246, p<.000$)를 보였다. 반면에 우울과 학업성취도는 역 상관관계($r=-.057,$

$p=.320$)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존감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 ($r=-.315, p<.000$)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N=350)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Self-esteem	.246* (p=.000)	
Depression	-.057 (p=.320)	-.315* (p=.000)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우울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이들 간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존감은 4점 만점에 $3.03 \pm .43$ 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Jung과 Shin(200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의 평균은 $2.89 \pm .42$ 로 본 연구보다 자존감이 낮았고,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3.03 \pm .43$ 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경제상태, 성격, 부모에 대한 태도, 적성고려 유무, 학교생활 만족, 간호학 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높은 학생이 경제적으로 낮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Park et al., 2007; Jung & Shin, 2006).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이 내향적인 학생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보였는데, 이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함으로써 과제수행과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Park et al., 2007). 학교생활에 만족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졌으며 이는 Jung과 Shin(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간호학에 만족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해 자랑스럽고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며, 전공에 가치를 부여하는 등의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Jung & Shin, 2006)로서 전공학문에 대한 만족이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우울은 학습의 동기 유발에 깊이 관여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의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00±.4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Kim(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울은 평균 4.07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경제상태, 거주형태,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에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hin(2001)의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작용하여 경증 이상의 우울의 요인이 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친척집이나 자취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있는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의존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데, 의존적 우울의 특징은 외로움, 낙담, 무력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보호받고 싶은 욕구 등으로 이는 사랑받지 못함, 유기되는 느낌 등의 정서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ho, 1996). 성인 초기인 대학생들도 부모와 가정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무력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거주형태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상담 및 정서 지지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이 만족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가 없이 합격가능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Jang, 2005)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우울의 성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학생과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이 심리적 고통이 크며 우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에 87.33점으로 학생이 부모에 대한 태도, 적성고려 유무, 간호학 만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인 학생이 반항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며(Jung, 2004),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이 학업성취이었으며 이러한 성공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Jang, 200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부모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 한 결과는 아니나 대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본인들의 태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관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이며 부모지원과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2002).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고려된다. 또 대학 지원시 적성의 고려 여부나 간호학 전공 만족 정도에 따라 자존감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만족스런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전공학과 선택 시 성적 위주의 선택보다는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해주는 결과라 본다.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자존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학업 스트레스가 낮았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연구결과(Park et al., 2002)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증진은 이들의 향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학생보다 자신의 학습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볼 수 있다(Park et al., 2002).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우울은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는 높으며 자존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존감을 높혀 주므로써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이 자존감과 중등도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구(Park et al., 2007)와 일치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자존감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높은 자존감은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Ha et al., 2004).

따라서 자존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환자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사 자신의 소진과도 관계되므로 자존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Brownig, Ryan, Greenberg, & Rolniak, 2006).

자존감은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므로 우울 정도가 낮다고 보고했다(Kim, 2005).

자존감의 강화는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울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요인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간호교육에서 교육과정 안에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우울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이들간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수집 하였으며 350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학년은 2, 3학년으로 경제상태는 중간이 70.8%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 82.0%로 가장 많고 부모 생존 여부는 부모 생존 94.5%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외향과 내향의 중간이 57.7%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애정적이다 71.4%로 가장 많았다. 본 학과 지원 시 적성을 고려한 학생 64.6%,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35.4%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 43.3%로 가장 많고, 간호학 만족도는 만족한다 51.1%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자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3±.43, 우울은 7점 만점에 평균 4.00±.40, 학업성취도는 평균 87.33±3.74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은 경제상태($F=3.02$, $p=.030$), 성격($F=16.52$, $p=.000$), 부모 태도($F=3.68$, $p=.003$), 적성 고려($F=5.15$, $p=.024$), 학교생활 만족($F=8.30$, $p=.000$), 간호학 만족($F=7.05$, $p=.00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은 경제상태($F=3.45$, $p=.023$), 거주형태($F=3.63$, $p=.003$), 학교생활 만족($F=3.18$, $p=.01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는 부모태도($F=2.86$, $p=.015$), 적성고려($F=4.27$, $p=.039$), 간호학 만족($F=3.53$, $p=.00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자존감과 학업성취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r=.246$, $p=.000$)를 보였다. 또한 자존감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r=-.315$, $p=.000$)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간호대 정규 교육과정에 자존감 향상 커리큘럼의 마련과 아울러, 간호학생에 대한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와, 우울의 예방과 우울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n, J. O. (2000).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affecting scholastic attainm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young adults. *J Abnorm Psychol*, *85*, 383-389.
- Bloom, B. S., & Brook, M. (1971).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s learning*. New York: McGraw - Hill Book CO.
- Browning, L., Ryan, C. S., Greenberg, M. S., & Rolniak, S. (2006). Effects of cognitive adaptation on the expectation-burnout relationship among nurses. *J Behav Med*, *29*(2), 139-150.
- Cho, J. Y. (1996). *A study about two dimension of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 S. J., Jeon, H. J., Kim, J. K., Suh, T. W., Kim, S. U., Hahm, B. J., Suh, D. H., Chung, S. J., & Cho, M. J. (2002). Prevalence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1*(6), 1142-1155.
- Croghen, I. T., Bronars, C., Patten, C. A., Schroeder, D. R., Nirelli, L. M., Thomas, J. L., Clark, M. M., Vickers, K. S., Foraker, R., Lane, K., Houlihan, D., Offord, K. P., & Hurt, R. D. (2006). Is smoking related to body image satisfaction, stress, and self-esteem in young adult?. *J Health Behav*, *30*(3), 322-333.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 Adolesc Res*, *15*(4), 470-481.
- Ha, E. H., Oh, K. J., Song, D. H., & Kang, J. H.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 Clin Psychol*, *23*(3), 263-279.
- Jang, M. Y. (2005).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majors of their selection, attributional style,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 Jung, G. S. (2002). *The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Jung, M. A. (2004).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ents' nurturing attitud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Jung, M. H., & Shin, M. A. (2006). Correlations between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 12(2), 170-177.
- Kim, J. S., & Shin, K. R. (2004).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ult women. *J Korean Acad Nurs*, 34(2), 352-360.
- Kim, K.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tudy skills,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adjust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Educ Prog*, 23(1), 2-13.
- Kim, S. Y. (200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 Korean Acad Nurs*, 37(4), 576-585.
- Lee, H. L., & Lee, H. J. (1996). A study on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and chang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Kyung-in nongip*, Kyung-in Women's College, Incheon.
- Lee, S. J., & Park, S. S. (2005).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Lee, S. H. (2005).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aim, academic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ce, C. R., & Ree, Q. (1979). The college environment. *Educ Res*, 30, 311-320.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n self esteem, self 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 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Psychiatr Nurs*, 11(4), 621-631.
- Park, H. S., Koo, H. Y., & Jang, E. H. (2007).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7(5), 715-723.
- Park, J. O. (2006).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goal, learning style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ston, N. J: Prinston University Press.
- Ross, R., Zeller, R., Srisaeng, P., Yimnee, S., Somched, S., & Sawatphanit, W. (2005). Depression, stress,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Int J Nurs Educ Scholarsh*, 25, 124-134.
- Shin, K. R. (2001). Depression among korean women. *J Korean Acad Adult Nurs*, 31(3), 391-400.
- Trze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 Psychol*, 42(2), 381-39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November). *Gender and women's mental health*. Retrieved September 10, 2007, from WHO web site: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genderwomen/en

ABSTRACT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Lee, Hwa In(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 College)

Purpos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350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3rd to 28th 2007. **Results:** 1) The mean scores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3.03 (on a 4-point scale), 4.00 (on a 7-point scale), and 87.33 (on a 100-point scores), respectively.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impacts o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e, character, attitude to parents, consideration of aptitud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Depress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e, residence type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d depending on the attitude to parents, consideration of aptitud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Moreover, self-esteem can provide a basis for constructing further studies in intervention programs relating to the curriculu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programs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the reduction of depression, and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on the development of such programs.

Key words : Students, Self-esteem, Depression, Achievement